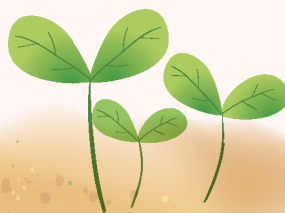




값진 경험, 값진 생명

김수현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학년



16년 7월 13일,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여름 방학, 나는 구급차 동승 실습을 하고 있었다. 항상 아침 9시마다 하는 구급차 교대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옴과 동시에, “땡땡, 땡땡, 구급출동” 출동 벨이 울렸다. 출근 후 바로 울린 출동 벨이 다른 때와 달리 다급하게 들렸다. 나는 실습을 한 달 동안 하면서 익숙해진 몸이 먼저 반응하여 즉시 출동일지와 충전 중이던 AED를 챙기고 구급차로 달려갔다. 출동내용이 담긴 지령서를 읽어보니 길거리에 60대 남성이 발작을 하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환자의 발작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구급대원 반장님이 출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바로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격양된 목소리로 받은 신고자는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누워서 구토를 하며 사지를 떨고 있었고, 환자가 아직 발작을 하고 있다는 통화내용을 듣고 구급차 뒤에 있던 나는 즉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구급가방을 점검하였다. 잠시 후 신고자로 부터 할아버지가 발작이 멈췄다고 다시 전화를 걸어 왔고 우리는 현장에 도착하고 있으니, 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구급차가 멈춤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바로 길거리에 누워있는 환자가 가슴에 가슴압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구급 반장님들은 갑작스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AED와 CPR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현장으로 뛰어갔다. 나는 구급차 동승실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갑작스런 심정지상황에 긴장했지만, 저분들처럼 침착하게 대응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반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챙겨 보조를 하였다. 우리 팀은 CPR에 능숙한 1급 응급구조사가 3명이었고, 나 또한 CPR과 AED 사용법을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 했기에 평소 보다 더욱 신속하게 역할을 나눴다. 먼저 기관 반장님이 가슴압박을 하던 사람과 교대를 하면서 상황설명을 들었다. 교대자는 환자가 발작을 갑자기 멈추더니 호흡이 없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심정지 발작으로 인한 증상을 일반인이 보기에는 단순한 발작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

각했고, 신고자가 우리에게 발작이 멈췄다고 했을 때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구토를 여러 번 하면서 발작한 듯 옷이 흥건히 젖어있었고, 얼굴은 창백한 낫빛을 띄고 있었다. 우리는 그나마 목격자에 의해 빠르게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지했고, 바로 환자의 가슴에 AED 패드를 붙였다. 환자의 리듬은 ventricular fibrillation (심실세동)을 보였고 첫 번째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다시 한 번 리듬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정상리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즉시 가슴압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호흡보조를 할 수 있도록 l-gel을 삽입하여 기도확보를 한 후 back valve mask로 6초에 한번씩 보조했으며, 다른 한 쪽에선 의사에게 의뢰지도를 요청하여 IV line을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2분이 경과되었고 다시 리듬을 분석한 결과 심실세동 리듬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는 두 번째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나는 반장님과 교대하여 가슴압박을 열심히 시행하였고 평소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도중에 호흡을 보조하고 있던 반장님이 환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소리쳤다. 나는 즉시 압박을 멈추고 맥박을 체크해 보았더니 맥박이 촉지 되었다. 아무래도 나는 실습을 하는 학생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반장님이 맥박을 다시 촉지 하였고 미약하게 뛰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그 순간 현장에서 기도확보와 수액공급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신기했다.

우리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현장을 정리하고 환자를 구급차에 태웠다. 하지만 구급차에 타자마자 맥박을 다시 확인 했을 때, 맥박이 약해져 촉지 되지 않았으며 리듬 또한 다시 심실세동을 보여 우린 즉시 다시 가슴압박을 실시하였다. 나는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였다. 덥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모두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에게만 집중하며 압박하는 구급 반장님을 보면서 환자를 살리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확실히 보였다. 앞에서 운전

하는 기관반장님 또한 어느 때 보다 크게 사이렌을 켜고, 상황실에 무전을 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부탁하였다. 급박한 사이렌 소리를 들은 도로의 운전자들이 하나 둘씩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내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환자의 심장박동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급처치를 하였고, 그렇게 현장에서 출발한지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급차가 멈춘 뒤 바로 다시 한 번 환자의 리듬을 분석하고 세 번째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구급차에서 내려 가슴압박을 실시하며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는 소생실로 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사실 상 우리의 역할은 병원인계 후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동안 소생실 앞을 서성이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환자상태를 지켜보았다. 다행히 구급차 내에서 준 마지막 제세동(세번째 shock)이 효과가 있었는지 리듬을 확인한 의료진이 다시 가슴압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때서야 우리는 소생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고 반장님들과 응급실 앞 의자에 몸을 기댈 수 있었다. 그렇게 숨을 고른 후 구급차에 돌아가니, 환자를 이송하면서 찢어지고 젖은 심전도 용지와 채액이 묻은 구급차 안의 들것, 뒤죽박죽 섞인 물품들이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선 우리가 현장에서 시행했던 초기 심전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너저분해진 심전도 용지를 일단 전달해 주었고 AED에 기록된 심전도를 다시 정리하여 건네주었다. 이렇게 나의 첫 심정지 출동이자 현장에서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줬던 출동이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들은 소식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환자는 우리가 이송했던 병원의 심장내과에서 과거에 심근경색을 앓은 이후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하며, 환자가 쓰러진 당일 오후 3시에 심장내과에 외래 진료 예약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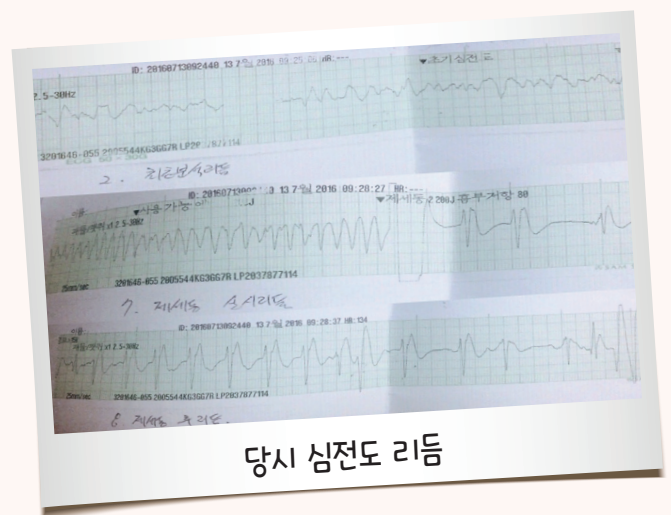
있었다고 한다. 환자는 지금 심장기능이 회복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반장님들과 그 기쁨을 나눴다.

나는 이 출동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과 신속하고 재빠른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많은 발전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의지가 생겼다. 구급차 동승 실습이 끝난 후 환자분께서 잘 호전이 되어 이 출동에 나간 사람들 모두 하트세이버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교수님께 알려드렸고 교수님은 같이 기뻐 주시며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에 학생 최초로 체험수기를 올려보는 것에 대해 제안을 받았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응급구조학과 학생 최초로 글을 적는 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평소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배우는 BLS 및 ACLS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줌으로써,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초기 CPR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영광스럽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창희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하트세이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하트세이버 수여식 당시 사진



당시 심전도 리듬